



2024년 제3차 정기회의 회의록

일 시	2024년 11월 29일(수) 15:00 ~ 17:00
장 소	스페이스 마레
참석자	강대석 위원장 외 21명(위원 14인 포함)
주요 안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◆ 2024년 민관산학협의회 사업보고◆ 연구 진행 상황 보고
주요 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◆ 연안 정화の日 행사 진행 경과 보고◆ 홍보물 제작 및 활용관련 보고◆ 연구 진행 상황 보고
세부 논의내용	<p><1> 연안 정화の日 행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◆ 2024. 9. 26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주관- 송정항~송정해수욕장~구덕포 정화활동- 참여기관: 부산시청(해양수도정책과), 지방해양수산청, 부산해양경찰서, 해양환경공단, 해운대구청,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◆ 24. 10. 20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(사)생명그물 주관- 가덕도 정화활동- 참석자: 환경단체, 시민, 1365 자원봉사자◆ 24. 10. 26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부산YWCA- 영도 감지해변 수중 및 연안 정화활동- 참석자: 스쿠버다이버, 플로깅참여자 <p>※ 행사영상은 협의회 홈페이지 게시, 2025년 4월 연안오염 총회 행사에 소개 예정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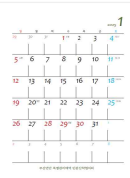
세부
논의내용

<2> 홍보물 제작

◆ 탁상용 달력 및 손수건



달력



손수건

<3> 연구 진행 상황 보고

- 북항해역 관리항목 및 관리구역 설정(안) 발표

◆ 수영만 및 북항의 자동수질측정 장치 유지 또는 신설

- 지속적인 수영만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 자동수질측정 장치 그대로 유지, 북항에는 연안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확보하기 위한 자동측정장치를 새롭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.

◆ 시민 홍보 강화

- 연안오염총량 관리 사업과 정화활동 등 외부에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.

◆ 민관산학협의회 차원의 해양수산부 건의 사항 도출

- 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함이므로 연안오염총량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사항을 도출해 협의회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 하면 좋겠다.

◆ 북항의 목표 수질 및 관리범위 설정

- 적절한 목표 수질을 설정하지 않으면 삭감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. 내년에 연구할 때도, 협의회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. 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통째로 관리하는 게 나은지 알 수 없다.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견 제시와 판단은 환경자문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민관산학협의회 위원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향후 의사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.

- 목표 수질을 설정하기 위한 수질 모델에 입력할 자료가 충분하고 적절하지 않으면 목표 수질은 제대로 설정할 수 없다. 수질모델 단계에서 잘못될 경우 달성하기 힘든 목표 수준이 나오거나 지나치게 목표가 낮아서 쉽게 달성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. 따라서 2025년 연안오염총량관리 연구를 진행할 때 모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노력을 충분히 기울일 필요가 있다.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부 논의내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영만의 목표 수질이 지나치게 무리한 목표였는지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북항의 목표 수질 설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. ◆ 수영만 비점오염 삭감 대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점오염 시설을 더 설치하든지 다른 방법과 대책을 세워야 수영만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. ◆ 연안오염총량관리의 한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년 이행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, 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들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은 건 분명하다. 그런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. ◆ 수영만 사후 모니터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년 수영만 사후 모니터링 과제는 확정되지 않았다. 지난 몇 년 동안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 해역을 북항으로 옮기고 수영만은 사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는데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후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이다. -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양의 COD를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, 특히 북항 쪽, 동천 쪽 자료도 있다. ◆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에 수질만 아니라 하천 유입 쓰레기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. 하천 유입 쓰레기를 비점오염으로 간주하면 연안오염총량 관리 대상이 되고,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도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. <p><4> 기타논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민관산학협의회 6기 위원 위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기: 2024년 12월 1일 ~ 2026년 11월 30일 - 제6기 위원 추천 공문 해수부 발송(24.11.12)
---	--



<제3차 정기회의>



<발표 및 논의>